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Policy on Green Seoul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최 용 호

I. 머리말

서울시는 605km²에 달하는 거대도시인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역량의 상당부분이 응축된 핵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1천만명의 시민과 그에 육박하는 수도권지역 유동인구까지 고려할 때, 공원녹지를 비롯한 도시의 생활환경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159.26km²로 전체면적의 26%에 달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5.65m²나 되어 세계의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편이지만, 공원면적의 80%가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시 외곽 근교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수준인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77m²로 세계식량기구(FAO)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9.0m²는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6.0m²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선1기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 민선2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는 35만평에 이르는 뚝섬 서울숲 조성을 비롯, 청계천 복원, 나들이공원 등 중대형 녹지공간의 조성과 학교공원화, 대학 및 공공기관 담장개방녹화, 벽면 및 옥상녹화 등 자투리땅을 녹화하는 다양한 녹지 확충방법을 총 동원해 도심 생활권에 100만평(약 3.3km²)의 녹지를 늘리는 민선3기의 공원녹지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다.

II. 민선1~2기 정책방향

1.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1996~2000)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추진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은 소극적인 공해방지 차원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당장의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 계획

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한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이었다는 점과 대규모 공원 녹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유지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시민참여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1998~2002)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은 민선 2기 공약사업으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이 면적위주의 공원녹지 확보 전략으로 추진된데 반해 도시녹화사업을 나무식재 수량의 개념으로 접근한 특징이 있다. 목표량이던 1000만주(공공부 700만, 민간부 300만)는 2001년 1500만주로 목표치가 상향조정되었고, 2002년 종료시까지 총 1,641만주를 달성하고 완료되었다. 이 계획은 광범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녹지량 증진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공공기관 담장철거, 학교공원화, 한강변 나무심기, 옥상녹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생태적 측면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

Ⅲ. 민선3기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서울시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예정)까지 추진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추진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생활권녹지 100만평 확충실적(2002년 7월 ~ 2006년 6월)

구분	사업별	확충면적(m ²)	비고
계		3,546,130	107만평
공원 분야	도시자연공원	1,772	
	근린공원	637,243	
	어린이공원	-14,697	
	묘지공원	-47,463	
	기타공원 확충(뚝섬 서울숲 포함)	1,209,813	
녹지	학교공원화	364,422	

분야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	40,360	
	공공기관 녹화	15,600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35,613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42,820	
	수경시설 확충	87,980	
	하천변 녹화	476,818	
	철도변 녹화	19,011	
	시설녹지 녹화	52,455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	6,606	
	가로변 녹지량 확충	107,285	
	옥상녹화	27,224	
	자투리땅 녹화	6,121	
	아파트 담장허물기	1,000	
생태 분야	청계천 복원	375,705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58,909	
	생태통로 조성	1,210	
	유수지 생태복원	40,322	

1. 공원 확충

(1) 뚝섬 서울숲 조성

서울시가 가진 몇 남지 않은 대규모 유보지중 하나였던 뚝섬지역은 ‘서울숲’이 조성됨으로써 그 다종다양했던 계획의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의 센트럴파크’, ‘사슴과 고라니가 뛰노는 도시숲’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공간은 시민이 뽑은 민선3기 우수사업에 ‘청계천 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선택된 점에서 알 수 있듯, 푸른 공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실히 부합한 성공작이라 평가된다. 도로로 조각난 공간적 약점을 생태숲, 시민이용공간, 체험공간, 습지공간으로 세심히 분류했고, 또, 한강, 중랑천, 청계천이 만나는 생태적 결절점의 기능에 충실했다. 개장초부터 한겨울까지 사시사철 펼쳐지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로 단시일내에 자리 잡았다.

표 2. 독섬 서울숲 조성현황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685 일대
면 적	: 1,156,498m ² (약 35만평)
식재내용	: 104종 421,902주
주요시설	: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등
추진부서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과(☎3707-9615)
- 발주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서울숲추진반
- 기본계획	: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안계동)
- 기본 및 실시설계	: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주)대우엔지니어링
- 시공	: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 감리	: (주)선진엔지니어링, (주)동일건축
조성기간	: 2003. 1 ~ 2005. 6
관리부서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과 서울숲관리사무소(☎460-2905~8)

(2) 거점공원 조성

서울숲 조성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1~5만평 규모의 다양한 중대형공원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민선3기에 들어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유휴공간의 활용이 두드러졌는데 중랑구 망우동 나들이공원과 구로구 향동 푸른수목원,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주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이 그 예이다.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토지수용비가 낮고 국비를 절반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지역 인근에 테마를 가미해 조성할 경우 시민이용은 물론 그린벨트 훼손방지 및 적극적 관리가 가능한 잇점이 있다. 또한,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의 대표격인 송파구 문정동근린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그린웨이 조성, 도시 곳곳에 위치한 미시설 공원 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에 지하주차장, 어린이집을 연계 조성하는 1동 1마을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3) 광장 조성

민선3기에 들어 서울광장(4천평), 승례문광장(2,400평) 조성을 비롯해 세종로 등

주요가로에 대한 보도확대, 횡단보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그 규모나 예산에 비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 도심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스케이트장 운영 등을 통해 사계절 이용가능한 열린공간의 사례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도심 광장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기존 교통체계에 대한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원 리노베이션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성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해 시설이 노후된 주요 공원에 대한 재조성(Renovation)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자 생태공간인 남산공원은 2005년 5월부터 승용차 이용을 금지한 대신 환경친화적인 CNG 순환버스를 이용하도록 변모했다. 여기에 도로변 웬스 26km중 14km를 철거해 보다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은 개원 후 20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을 청소년을 주제로 한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지난해까지 1단계로 모험놀이장(X-game)장, 암벽등반장, 생태연못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고,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노후된 시설개선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해 강북지역의 종합테마공원으로 거듭나고자 추진중에 있다.

2. 자투리땅 녹화(녹지 확충)

(1) 학교공원화

한정된 토지와 높은 지가로 도심내 공원녹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는 생활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녹화가 가능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지이다. 또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옥상녹화 조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총 376개 학교 364,422㎡를 녹화하였다.

(2)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

대학교 담장 개방 녹화사업은 대학 캠퍼스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한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대학은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녹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며, 총 16개 대학담장을 개방하고 40,360㎡를 녹화했다.

(3) 하천변녹화

하천은 홍수예방이라는 치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도시개발의 틈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도시공간으로, 최근 넓은 둔치공간에 대한 활용욕구와 보존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치수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식물종 식재, 생물서식공간 조성, 관찰로 및 산책로 설치, 하천 바깥쪽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천변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총 33개 구간 476,818㎡를 녹화했다.

(4) 벽면녹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 담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 각종 도시구조물 벽면 하단에 선형의 화단을 조성한 후 담쟁이 등 다양한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녹색벽면으로 녹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도시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도록 361개소에 35,613㎡ 추진하였다.

(5)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은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를 푸르름이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특색있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재길을 비롯 총 14개 노선 42,820㎡를 푸르게 가꾸었다.

(6) 수경시설 확충

수경시설 확충사업은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주변에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주요 가로변에 분수, 벽천 등 수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 대기정화 및 경관개선 등에 기여하게 되며, 19개소 87,980㎡에 다양한 수경시설과 주변녹지를 조성하였다.

(7)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

지정보호수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전설이나 유래를 지니고 마을 입구를 나타내던 장소성의 상징이나 현재는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의 밀집화로 주변에 온갖 건축물이 난립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생육환경이 크게 제한된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서는 219주의 보호수 중 생육환경이 열악한 9개소 6,606㎡에 대해 정자마당을 조성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8) 숨어있는 자투리땅 녹화

길을 걷다보면 이상하다 싶게 방치되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쓰레기나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나 보도가 충분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1열로만 식재 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간을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확충하는 숨어있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2005년 푸른도시국 신설후 아이디어사업으로 시작해 시민과 자치구를 통해 총 943개소 77,432㎡(23,423평)의 대상지를 찾아내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80개소 6,121㎡를 녹화 완료했다.

(9)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

상당히 긴 구간인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다르게 짧은 구간인 공공기관 담장녹화는 담장 뿐만 아니라 삭막한 건물내 유휴공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5개소 15,600㎡의 공공기관 담장을 개방하고 푸른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에게 제공하였으며, 서울시 산하 전체 기관의 담장을 개방하고 녹화시킬 계획으로 있다.

(10) 옥상녹화

땅값이 천정부지인 도심에서는 건축물의 옥상도 훌륭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다. 건축물 옥상녹화는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징검다리 생물서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내구성 제고효과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칭펀드 방식(50:50)으로 67개소 27,224㎡의 건축물 옥상을 푸르게 가꾸었다.

3. 생태도시 기반구축

(1)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의 출발은 안전이었다.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의 안전문제는 나만 모르고 모두 다 아는 유행어처럼 쉬쉬하며 지내온 것이었다. 청계천 복원의 의의는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서울의 척추라 할 수 있는 남북녹지축의 중심을 하천이 가로지르면서 그물망처럼 얽혀드는 네트워크는 자연과 인간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두터운 콘크리트에 덮혀있던 서울의 오랜 역사를 새롭게 끄집어냈다. 이 주변은 이제 무섭게 변화될 것이다. 서울의 바람길은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와 서울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고, 도시를 사는 맛은 새롭게 변해갈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연동할 것이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첫 걸음이다.

표 3. 청계천 복원사업 현황

<p><총 괄> 위 치 : 태평로 입구 ~ 신답철교(5.84km) 면 적 : 375,705m²(113,651평) 추진부서 :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기본계획 : (주)동명기술공단, (주)유신코퍼레이션 추진기간 : 2003. 7. 1 ~ 2005. 9. 30 관리부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688-0001)</p> <p><1공구> 위 치 : 태평로 입구 ~ 광장시장(2.0km) 추진부서 :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설계 : 조정설계 서안(주)(대표 정영선), mikyong kim design사(소장 김미경) - 시공 : 대림산업(주)(대표 이용구), 삼성건설(대표 이상대), 삼호(대표 신일철) - 감리 : (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 안병제)</p> <p><2공구> 위 치 : 광장시장 ~ 난계로(2.1km) 추진부서 :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설계 : (주)신화컨설팅(대표 유의열) - 시공 : GS건설(대표 김갑렬), 현대산업개발(대표 정몽규) - 감리 : 제일엔지니어링(대표 염병대)</p>

<3공구>

위 치 : 난계로 ~ 신담철교(1.74km)

추진부서 :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설계 :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전영주), (주)쌍용엔지니어링(대표 안영기)
- 시공 : 현대건설주식회사(대표 이지송)
- 감리 : 청석엔지니어링(대표 정희용)

(2) 청계천·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지정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의 생태적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5년 2월 중랑천 하류 591,407㎡ 구간(청계천 합류지점 ~ 한강 합류지점)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이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약 40여종의 철새가 4~5천마리 이상 찾아오고, 주변 청계천, 서울숲, 응봉산(개나리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청계천을 따라 철새들이 도심까지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잠재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 후 진행된 조류모니터링 결과 청계천 하류(제4공구, 신담철교~중랑천 합류지점)도 새로운 철새서식처로 변모함에 따라 이 두 지역을 통합해 ‘청계천·중랑천 철새보호구역(952,723㎡)’으로 새롭게 지정·관리하고 있다.

(3) Green-Network, 단절된 공원녹지의 연결

도로와 주택건설로 인한 녹지공간의 파편화는 생물서식처의 파괴와 외부로부터의 생물종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도시내 생물종 다양성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생태통로 설치, 녹지와 하천의 생태구조 개선을 통해 야생동물 이동 및 서식을 유도하여 도시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화과정에서 단절된 공원녹지 132개소(남북녹지축 8, 환상녹지축 15, 지선녹지축 75, 하천축 34)를 전수조사하고, 연결이 가능하고 중요성이 큰 32개소를 2015년까지 모두 연결하는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대상지(2005~2015)

구 분	개소수	대상지
	32개소	
남북녹지축	4개소	사당동 원당고개, 남부순환로변 까치고개, 창덕궁~종묘 울곡로, 홍제동 의주로 무악재
외곽환상산립축	3개소	중랑구 망우리고개, 은평구 별고개, 서초구 양재고개
산림생태축	15개소	강북구 오동근린공원-3개소, 중구 남산도시자연공원-3개소,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3개소, 양천구 은수도시자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2개소, 서초구 서리풀공원-3개소
조성녹지축	3개소	서남하수처리장 생태녹지축, 경인고속도로변 생태녹지축, 강북구 서경대 생태녹지축
하천축	7개	노원구 당현천, 도봉구 방학천, 관악구 도림천, 서초구 반포천, 송파구 성내천, 중랑천 중상류부, 안양천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시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습지, 야생동식물 집단서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보전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9개소 2,157,396㎡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사라졌던 제비가 날아오고, 물총새가 날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쇠부엉이, 원앙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서울의 생태가 살아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일 것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2006년에도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대상지에 대하여는 3년에 걸친 정밀관찰을 통해 생태계가 보전되고 서울의 생태계가 살아나는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표 5.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 9개소 2,157,396㎡ (2006년 4월 현재)

이름	한강밤섬	둔촌동	방이동	탄천	진관내동	암사동	고덕동	청계산원터골	현인릉
면적(㎡)	241,490	24,696	58,909	1,404,636	16,639	102,497	105,609	146,281	56,639

(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biotop) 조성

도시 곳곳에 생물서식공간(Biotop)을 조성하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원은 자연공간이 조성된데 비해 생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할 때, 생태연못, 계류 등을 조성하고 수생식물 등으로 차폐해 동물들이 서식·번식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대상지이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7개 공원 11개소 약 95,340㎡을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하였다.

(6) 근교산 계류 조성

근교산 계곡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계곡이 건천화 되어 생물 종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소형담 형태의 생태계류를 조성하여 물을 계곡에 저류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남산, 북악산, 북한산 등에 306개소의 생태계류를 조성하였다.

IV. 맺음말 - 푸른도시 서울을 향하여

서울숲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될 것이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법에서 제시한 1인당 생활권 녹지 6㎡는 향후 수 년 안에 300만평의 녹지를 끊임없이 확충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 남북녹지축의 중심부인 78만평 용산미군기지는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민족의 자랑이 될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40만평에 이르는 도심에 산재한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공원화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가 가시화되고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이제까지 가상적 개념선으로만 인식되던 서울 남북녹지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을 필두로 모든 하천에 대한 생태적 변모가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지선 녹지축을 연결해 나가는 노력 등 도시 녹지를 그물망처럼 이어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연환경을 만드는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목표이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숲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제외하면 가능한 대상지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아울러 공원 녹지가 부족한 주택가 주변 등에 각종 기관 및 기업체 이전적지, 노후 건축물 부지 등을 매입해 수 천에서 수 만평에 이르는 중형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푸르름을 원하는 시민들과 서울이라는 세계적 대도시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발계획의 수립시부터 공원녹지와 생태와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조그마한 도심공간이라도 녹화를 우선 고려하는 도시관리 방향의 추진만이 회색도시의 오명을 벗고 푸른도시, 생태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집 앞으로까지 녹지가 들어차고 집안에도 푸르름 가득한 도시, 뒷산에 고라니가 거닐고 집집마다 체비가 집을 짓는 도시, 학교는 물론 모든 건물들의 담장 대신 나무가 들어서고 하천에는 곤충과 물고기와 새가 먹이사슬 속에서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도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녹지가 가꾸어지고, 다양한 문화가 그 푸르름에 녹아드는 도시, 이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이자 희망이다.